

연구는 나의 운명, 꾸준함은 나의 힘



김민선 교수는 20년간 꾸준히 비만 연구를 진행하며 국내 비만 연구 발전에 힘쓰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민선 교수는 두 가지 시간을 산다. 진료실에서는 당뇨 환자를 만나는 의사로, 실험실에서는 식욕 조절 기전을 연구하는 기초의학 연구자로 일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지 묻는 질문은 그에게 의미가 없다. 20년 넘게 한결같이 병행해 온 진료와 연구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가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오로지 ‘연구가 재미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구 분야는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해요. 또 당뇨는 완치가 없으니까 느리게,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진료와 연구 모두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해요. 재미있으니까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거둬하다가 어느 순간 연구자의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구나’하는 느낌이 오는 순간 희열을 느끼죠. 그게 연구의 재미인거 같아요.” 김 교수는 ‘무엇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연구에 강한 끌림을 느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인다.

오롯이 비만 연구 한 길을 걷다

김민선 교수는 우리 사회가 아직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1990년대 말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비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고 회고한다. 1996년 영국 연수 당시 비만과 당뇨 등 내분비 대사질환 관련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븐 블룸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가는 기회가 생겼고, 3년간의 연수 기간 동안 김 교수는 11편 가량의 논문을 발표하며 연구의 즐거움과 도전의 동기를 얻었다.

2002년 서울아산병원 이기업 교수팀에 합류하며 더욱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진료실과 실험실을 수없이 오가며 그는 새로운 연구 성과를 속속 발표했다. 김 교수는 ‘뛰어난 교수님들과 서울

아산병원의 좋은 환경이 있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한다.

2004년과 2006년, 그리고 2013년 「네이처 메디신」, 「네이처 뉴로 사이언스」 등 주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며 비만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자로 자리를 굳혔다. 지난 4월에는 국내 비만 연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운의학대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저 개인에게 영광이자 기초의학 연구자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라고 말한다.

"논문의 개수나 화제성에서 보면 기초연구 분야는 임상 분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초연구 분야 실험을 통해 논문을 내야 하니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 임상 분야는 논문 한 편을 완성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대체로 짧고, 논문 인용 지수도 훨씬 높지요. 그래서 기초연구 분야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워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후배들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의 삶과 동행해 온 20년

지금도 연구실과 진료실을 오가며 바쁘게 생활하는 김 교수는 가끔 환자들이 '선생님 만난 지 몇 년이 됐어요.' 하는 인사로 세월을 느낀다. 당뇨병은 완치가 없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인만큼 그가 20년을 담당한 환자들도 적지 않다.



최근 김민선 교수는 뇌가 어떤 방식으로 비만에 관여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에 한 환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물론 제 덕분은 아니지만 제가 도움이 됐구나 싶어 기뻐했어요. 당뇨는 자신의 인슐린 분비 능력에 맞게 음식을 섭취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해요. 잘 관리해서 합병증이 안 생기고 잘 지내시면 성공인거죠."

김 교수가 꾸준히 진료와 연구를 거듭하는 동안 당뇨와 비만에 대한 사회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비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다. "배달 음식 문화와 편리한 스마트 기기 발달로 인한 운동량 저하 등 사회적 인 요소가 다 맞물려 있어요.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문화와 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식욕 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야죠. 현재 많이 복용하는 식욕억제제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안정적인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김 교수는 '제 연구가 효과적인 약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최근 김민선 교수는 뇌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 비만 연구는 지방세포나 장을 중심으로 식욕이 어떻게 조절되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연구했지만, 최근에는 뇌의 시상하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비만과 노화가 시상하부와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고 특히 염증으로 인한 시상하부 뉴런의 기능 장애가 비만과 노화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 교수는 어떤 뉴런과 물질이 비만에 관여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방식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생은 우연에 의해서 이뤄지는게 많은거 같아요. 영국에서 비만 연구를 하게 된 것도, 뇌 연구로 연결된 것도 제가 걱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자신의 선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해보라고, 한 가지를 택하면 매일, 꾸준히 해야 전문가가 된다고 말해요. 저는 늘 꾸준히, 버릇처럼 연구를 했던거 같아요." 김 교수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연구에 몰입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라고 말한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즐거움으로 정신적인 젊음을 누린다는 김민선 교수는 연구를 좋아한 연구자로, 환자에게는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조언해 주는 의사로 기억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글 편집부